

직접 받고 브로커가 주고...국립광주과학관 납품비리 기가막혀

계약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기자재 납품...막대한 국고 낭비

광주지검, 전 경영본부장 4명 구속...브로커 등 12명 기소

국립광주과학관 전 임직원 등이 관급계약 납품업체와 브로커에게 발주계약 체결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넬받아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비리로 계약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기자재가 납품되고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관급계약 계약과 납품에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조달 시스템을 무력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경영

지원본부장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관급계약을 알선한 일명 '브로커' 4명(1명 구속·3명 불구속)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에게 직접 뇌물을 상납하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됐다.

A씨 일당은 공모해 발주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총 1억 4000여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립광주과학관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대화장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3월 국립광주과학관의 다른 임직원들이 과학기술정보부에 고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이들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총 70여건의 계약과 관련해 2가지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한 물품은 빔프로젝터, 손소독기, 컴퓨터, 전자 질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스마트 교육·전시환경 구축 물품 등이다.

첫 번째는 방법은 관급 납품업체 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A씨는 전직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지원실장 2명과 전직 시설안전관리소장 1명과 공모해 계약체결을 원하는 납품업체 운영자에게 많게는 845만원부터 적게는 185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두번째 방법은 브로커를 활용하는 것이다.

브로커에게 관급 납품업체를 물색하도록 하고 브로커가 알선한 특정 업체와 국립광주과학관이 발주 계약을 체결한 뒤 브로커가 해당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받으면 일부를 A씨 일당이 챙기는 방식이다.

브로커들은 업체 물색, 인사비 조율, 인사비 수령, 인사비 분배 등의 역할을 나눠 분업형태로 범행했다. 브로커들은 총 4억 6000여만원을 수수해 이 가운데 1억 1600여만원을 A씨 등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일부 납품업체는 기소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금품제공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고의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급 납품 비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뇌물을 주기 위해 관급납품 업체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납품 물건가액에 추가해 계약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형 물건이 공공기관에 들어 갈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관급납품비리가 발생하면 형제로 모은 국고가 낭비되고, 납품된 기자재도 충분한 품질을 맞추지 못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 등 임직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 1억 4000여 만원과 브로커의 범죄 수익 3억 1800만 원을 전액 추징 보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 계약 체결을 따내려면 인맥이나 뒷돈이 개입돼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범행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구발전 혁신 방안은 24일 광주시 동구청 상황실에서 동구발전혁신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동구 관광, 특색 살릴 브랜드가 필요하다

동구의회 토론회

구도심인 광주시 동구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관광 브랜드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동구의회는 24일 오후 2시 동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은성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동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관광 브랜드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관광객이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의 거리,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하나의 일관된 브랜드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관광 브랜드로 '오매광주'를 내걸었듯

문화전당 등 자원 보유하고도 정체성 없고 지역사회 연계 미흡 임대료 상승에 프랜차이즈 장악 야간 콘텐츠·도시재생 연계해야

동구 또한 동구만의 관광 특색을 한 눈에 보여 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CC와 무등산 국립공원은 지금까지 동구의 핵심 관광지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오히려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고 지역사회 관광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동구 관광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때문에 관광 동선이 연계되지 않으니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관광객이 하루 이상 머물 수 있는 숙박·체험형 콘텐츠가

부족하고 야간관광 명소도 없어 저녁 이후 방문객이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동구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789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310분 짧았으며 전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콘텐츠가 지역 상권과 연계되지 않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낮고, 충장로-예술의거리 등은 매출 하락과 임대료 상승으로 특색 있는 지역 상인들이 떠나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장악하면서 이른바 '맥도날드 관광' (규격화된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 교수는 "관광은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체험을 하는 '일탈' 경험을 위한 것"이라며 "관광 개발 시 동구만의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역상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자체·학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전남 봄 어때요?

기온 높다 늦봄부터 초여름 날씨...3월 반짝 추위

광주-전남의 올해 봄철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초여름도 빨리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의 '광주-전남 3개월 예보'에 따르면 올해 3-4월의 월 평균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확률이 각 40%로 예측됐다.

광주-전남의 평년 3월 월 평균기온은 6.9-7.7도, 4월은 12.2-13.2도다. 다만 3월 중 한반도 인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겠다.

기상청은 5월의 월평균기온은 평년(17.4-18.0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로 예측돼 늦봄부터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 인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

돼 대체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태평양과 남인도양의 고수온이 한반도에 따뜻한 습한 남풍을 불어넣으면서 올해 봄에는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3월 월강수량은 평년(61.6-91.3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 40%이며, 4월은 평년(80.5-119.2mm)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릴 확률이 50%다. 5월 월강수량은 평년(110.1-131.4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 40%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10년 동안 평년 대비 월평균기온이 3월은 1.3도, 4월은 0.9도, 5월은 0.5도 상승해 온난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올봄 역시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무더운 봄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봄꽃 늦다 올 겨울 기온 낮은 탓...완도 벚꽃 4월 4일 절정

광주-전남에서 올해 생강나무 꽃이 지난해보다 2-3일 늦게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강나무는 우리나라 자생 꽃나무 중 가장 빨리 꽃을 피워 일명 '봄의 전령사'로 불린다.

24일 산림청 '2025 봄철 꽃나무 개화(만개) 예측지도'에 따르면 오는 3월 19일 완도수목원을 시작으로 생강나무가 만개한다.

지난해(3월 16일)보다 3일 늦춰졌다. 올 겨울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아 개화가 늦어진다 것이 산림청의 분석이다.

봄을 알리는 진달래와 벚나무도 지난해보다 개화가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완도 수목원의 진달래와 벚나무는 3월 27일

(지난해 진달래 3월15일, 벚나무는 3월 26일) 만개한다. 해남두륜산의 경우 생강나무는 3월 20일(지난해 3월 18일), 진달래는 3월 29일(지난해 3월 18일), 벚꽃은 4월 4일(지난해 3월 31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영암 월출산에서는 3월에 진달래(21일), 생강나무(24일), 벚나무(30일)가 차례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은 계룡산(공주)에서는 3월 31일, 지리산 세석(경남 산청)에서는 4월 19일 만발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서는 4월 2일 만개한 진달래를 볼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30	5
신학과	1	1
한국어교육학과	24	5
복지상담융합학부	8	2
사범	8	2
예능	21	8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